

문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북·미중재 조율

한미정상회담 14일 앞두고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막판 협의

평화체제 구축 '운전자' 위상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핵심 관문인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오는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막판 조율에 나선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에서 '중재역'을 자임하는 문 대통령으로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간 비핵화 방법론의 간극을 좁혀 나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조율과 중재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견인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운전자'로서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5일 "다가오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방안에 대해서 중점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번 만남의 초점이 북미정상회담 준비에 맞춰졌음을 시사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3일 비밀리에 미국을 방문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동한 데 이어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직접 조율에 나서게 됐다. 따라서 북미 간 비핵화 방법론을 어떻게 좁혀나갈지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도보다리 단독회담' 등을 통해 김 위원장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세밀한 조율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9일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해법 등과 관련해 중국·일본의 의견을 수렴한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북미정상회담 사전 조율'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역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해법 모색에 집중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신임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북핵 문제 해결의 원칙으로 기존의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대신 'PVID(perman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



17 경기도 파주 임진각을 찾은 시민들이 전망대에서 북녘땅을 바라보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임진각 등 접경지역의 관광지를 찾는 여행객들이 늘고 있다. /연합뉴스

ting, 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라는 개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거쳐 북미정상회담에 나서면서 어떤 방법론을 제시할 것인지, 김 위원장과 어떤 방식으로 접촉점을 찾아갈지에 시선이 집중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날짜와 장소가 정해졌으며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는 했지만 북미정상회담 장소와 일정은 여전히 안개속이다. 회담 장소의 경우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개최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판문점이 유력 후보지'라는 주장이 힘을 얻었지만, 최근에는 다시 싱가포르를 포함한 제3국에서의 개최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특히 회담 날짜와 관련해서는 예상보다 더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미정상회담 날짜가 22일로 정해지면서 북미정상회담은 '5말6초'(5월말 6월초)가 거론되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에서의 조율을 바탕으로 북미 간 물밑 협상을 벌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6월로 회담이 넘어갈 수 있다는 예상이 우세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靑 '북미정상회담 일정' 촉각

일정 발표 뒤 문 대통령, 김 위원장과 핫라인 통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중대 관문이 될 북미정상회담 일정 발표에 청와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핫라인(직통전화) 통화', 북미 양측의 입장 조율 등 '중재역 행보'를 본격화하는 시점으로 '북미정상회담 일정 확정 이후'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북미 간 신경전으로 비핵화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나오는 만큼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빨리 발표되기를 바라는 기류도 감지된다.

실제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5일 양재초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과 통화하며 북한의 위협에 대처할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6일 "미국이 압박과 군사적 위협을 계속 추구한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미 간 물밑 신경전이 있더라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의견을 좁혀간

다는 '큰 틀'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관측이다. 특히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공식 발표되면 김 위원장과 핫라인 통화가 이뤄지는 등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시계바늘이 바쁘게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김 위원장과 통화를 하고, 22일 한미정상회담 이후 북미정상회담 이전에 다시 통화하는 등 핫라인이 2차례 이상 가동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9일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특별성명의 형태로 판문점선언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지지를 명확히 끌어낸다면 향후 한미정상회담이나 북미정상회담 과정에서 '운전자'로서 한층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4일 전화 통화를 가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美 샌안토니오시 방문 윤장현 광주시장

2018 비엔날레·2019 세계수영 초청

지난 2일부터 미국 샌안토니오시를 방문중인 윤장현 광주시장은 지난 4일(현지시간) 론 니렌버그 샌안토니오시장과 상공회의소장을 예방, 광주·샌안토니오시 자매도시 36주년을 기념해 2018광주비엔날레와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광주시 주요 행사에 초청의 뜻을 전했다. 또 향후 양 도시간 주요 문화행사 상호 교류, 기업인 정례회의 등 다방면으로 새로운 교류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미국 텍사스주에 위치한 샌안토니오시는 1982년에 자매결연이 체결된 유일한 북미도시로 남광건설이 2010년 기증한 '광주의 정자'가 시내 테만공원에 있어, 경제, 환경, 문화예술 등에서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10개의 자매도시를 초청, 대대적인 기념행사와 공공예술품 제작식, 특별전시회, 불꽃놀이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했다.

윤 시장은 300주년 기념 축하 메시지에서 남·북한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 대해 언급하고 "향후 열릴 미국과 북한과의 회담이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며 "광주시와 자매도시 샌안토니오와 같은 지방정부의 상호 교류야말로 전세계·전민족의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첫걸음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의 역사적 성취와 문화·인권도시의 특성을 홍보하고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요청했다.

올해 건립 300주년을 기념해 전 세계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올해 노벨문학상 안 뽑는다

'미투 파문' 스웨덴 한림원 "신뢰 회복이 먼저"

미투 파문 여파로 스웨덴 한림원이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고 결정했다"며 올해 취소 노벨문학상 시상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스웨덴 한림원은 최근 성명을 내고 올해 노벨문학상을 시상하지 않고 내년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스웨덴 한림원은 지난해 11월 중신위원 18명 중 한 명인 카타리나 프로스텐의 남편인 프랑수아 시잔작가 장클로드 아르노에게서 과거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성 18명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미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노벨문학상이 수여되지 않는 것은 지난 1949년 이후 69년 만에 처음이다. 한림원은 "차기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발표되기 전에 한림원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

다. 아르노는 자신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부인했지만 한림원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가 강요된 형태로 서열관계에서 발생했다"고 성폭행을 시인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

전남서도 야생진드기 감염환자 발생

전남에서도 울드러 첫 야생진드기 감염 환자가 발생했다.

월 농촌의 50대 이상 연령에서 주로 발생한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신안에서 텃밭일을 하던 A(여·77)씨가 야생진드기를 통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진드기에 물리면 6~14일 이내 잠복기를 거쳐 고열이 지속하며 구토·설사 등 소화기 증상, 전신 근육통증이 발생한다. 심해지면 다발성 장기부전이나 신경계 증상, 혼수 등 중증 증상이 나타난다.

A씨는 지난달 29일 고열과 저혈압 증세를 보여 병원을 찾았으며, 현재는 상태가 호전 중이다. A씨는 1주일에 3번 가량 텃밭일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SFTS는 진드기 활동이 활발한 5~9

월 농촌의 50대 이상 연령에서 주로 발생한다. 진드기에 물리면 6~14일 이내 잠복기를 거쳐 고열이 지속하며 구토·설사 등 소화기 증상, 전신 근육통증이 발생한다. 심해지면 다발성 장기부전이나 신경계 증상, 혼수 등 중증 증상이 나타난다. 울드러 전국적으로 5명의 환자가 신고돼 이 가운데 1명이 숨졌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해남 '한눈에 반한 쌀' 전남 최고 쌀 선정

해남 '한눈에 반한 쌀'이 올해 전남 최고 쌀로 인정받았다.

한국식품연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쌀 관련 6개 전문기관이 평가에 참여했다.

전남도는 올해의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시중 판매처에서 두 차례에 걸쳐 무작위로 구매한 시료를 대상으로 품종 혼입률, 품질, 외관 품질, 식미 평가, 중금속·잔류농약 검사, 서류·현장 평가 등 2개월에 걸쳐 심사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이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전국 최고 명품 쌀 생산·유통 활성화를 위해 정부 평가 기준을 적용, 전남도가 지난해 생산된 전남 쌀을 자체 평가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무등산 정상 12일 개방

오전 9시~오후 4시

광주시와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12일 올해 처음으로 무등산 정상을 개방한다.

km 구간이다.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12일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통과된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기념해 광주, 담양, 화순 시·도민이 함께 무등산권을 즐기는 방식으로 열린다. 전남대 지질관광사업단이 주최해 문민정사 앞 잔디광장, 무등산 정상 등 곳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중·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혈당조절

식후 혈당 상승억제!!!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식후 2개월식~ 하루 2번으로 식후 혈당상승 억제 OK!!!

삼성제약헬스케어(주) 당디펜스(D.Defense)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1일 4캡슐로 혈당조절이 충분합니다.

당 디펜스 이분들께 권해드립니다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평상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010-3598-7080

펜션·가든 부지매매

▶고창군 고수면 문수로 171
▶대지 및 전답 4,000㎡(전평 정남향)
▶2차선 도로, 계곡 200m 접해 있음
▶부속건물 / 한옥 / 수영장 / 방갈로
▶장성 편백숲 5분거리
▶문수사 단풍숲 2분거리

010-3768-0615 주인 직매
010-3799-3830

"공장부지 매매" (급 매)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97-13, 91-3
■ 문평농공단지 6차선도로변 공장
■ 대지 14,916.9㎡, 건물 998㎡(H빔 구조)
■ 태양광발전소 99kW 설치(건물위)
■ 공장, 창고, 사무실, 샤워장, 화장실 시설 구비

◆ 매매가 30억 ◆

인원산업(주)
010-3605-0214
062) 655-4840